

테러리즘에 대한 특수경비원의 인식분석

An Analysis of Special Guards' Perception on Terrorism

김효준[†] 박헌영* 안병수**

Kim, Hyo-Joon, · Park, Heon-Young · Ahn, Byung-Soo

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 actual conditions on realization about safety of observable individual and country, terror countermeasure from danger of terrorism which special guards have. To achieve these purposes, 400 special guards were sampl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collected data through questionnaire from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 collected data are in statistics of $p < .05$ levels. As the result, we drew following conclusions. Special guards thought that terror might occur most in 'aircraft, rapid-transit railway, subway, and bus'. It was no difference in society demography($p > .05$). In type of terror, 'bomb terror' seemed to happen most, and they recognized that biochemistry terror and factor terror, and hostage terror may happen in society demography. Purpose of terror was thought that 'political purpose' may be the biggest, and 'ideological purpose' and 'social purpose' joined the remainder. According to society demography, woman's realization about terror was higher than man in two low variables. According to age, image of terror was high in 40 more than 20.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university graduate were higher than a high-school diploma in two low variables. According to place of work, metropolis was high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city.

Keywords Terror, Special Guard, Analysis of Perception, Countermeasure to Terrorism

요 지 이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수경비원들은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p < .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의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일어날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화학테러와 요인·인질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테러의 목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은 두 하위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20대 보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두 하위변인 모두 대졸이상이 고졸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테러, 테러리즘, 특수경비원, 인식분석, 테러리즘 안전대책

† 교신저자 : 정회원,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겸임교수
E-mail : hyojoon-k@hanmail.net
TEL : (010)9723-7810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 초당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

1.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이해를 달리 하는 국가 민족 또는 특정 조직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도시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테러리즘 위협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과거의 테러리즘은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 측면이 강했으나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현대 테러리즘은 최정에 테러리스트들이 고도의 치밀함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쟁의 형태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금의 세계정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국제관계를 유지해왔던 냉전체계가 붕괴되고 국제 테러리즘이 퇴조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국제테러 분자들은 그들의 목적달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주요인사에 대한 납치, 암살, 비행기 납치 및 폭파,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테러에 대한 위기는 교통, 통신수단 및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용이하므로 테러수법이 더욱 교묘화·조직화 되고 있으며 동시에 테러에 용이한 첨단 무기와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무차별하고 대형 살상화 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처럼 테러는 오늘날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테러에 관한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파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형근, 199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리즘의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그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은 중동과 같은 여타 테러리즘 다발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 테러리즘 단체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한남수, 2002).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행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테러우려와 대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테러리즘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테러와 테러리즘의 개념

테러리즘(terrorism)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얻은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 테러리즘과 동의어로 테러(terr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혼란이 가중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테러조직의 공격방법, 테러리즘의 동기, 특징, 공격방식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점차 학자, 보안전문가, 저널리스트 등이 의견을 접목하여 접근해가고 있다(이황우, 2010) 테러리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며 그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망라하는 규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1937년 ‘테러리즘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1조에서는 테러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에 대해 또는 특정 개인과 집단, 일반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의도한 형법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972년에는 ‘특정한 국제테러리즘 행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초안에서는 불법한 살해, 중대한 신체 위해 및 약취 등의 행위에 관여 또는 참가하여 국제적인 중요성을 유대하는 것을 조약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9년의 ‘국제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이슬람제국회의기구조약’에서는 테러란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폭력이나 폭력적인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적, 집단적으로 범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국방부, 2002)

2.2 테러의 발생원인

테러의 발생 원인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심리적 측면의 발생원인, 국제환경적 측면의 발생원인, 기타 발생 원인으로 구분된다.

1) 사회·심리적 측면의 발생원인

먼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은 Gurr(1970)가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이 있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 및 집단의 가치 기대(value expectation)와 그 가치 능력(value capabilities)간에 괴리가 생길 때 폭력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의 유형은 점감적 박탈감(decremental deprivation), 열망적 박탈감(aspirational deprivation), 점진적 박탈감(progressive deprivation)으로 나눌 수 있다(최진태, 2006).

2) 국제환경적 측면의 발생원인

제 3세계 국가들은 1960년경을 기점으로 서구 제국들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독립함으로써 그들의 공식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서구 열강의 경제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 제 3세계 국가들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러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화된 것이 테러 발생의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즉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을 테러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이론이다(이태운, 2010).

3) 기타 발생원인

사회·심리적 측면의 발생원인과 국제환경적 측면의 발생원인 외에도 테러 발생을 촉진하는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중매체의 발달이다. 테러리스트의 목적은 테러 행위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주장하는 바를 피력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테러 발생 즉시 그 사실이 전 세계로 실시간에 전파된다는 사실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 통신, 무기체계의 고도 정밀화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정보, 테러 전술의 교환, 무기 및 훈련에 대한 지원 등 테러단체들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고도의 도시 집중화 또한 테러의 원인이 된다. 도시집중화 자체는 테러리스트로 하여금 공격 목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상수도원, 도시가스 저장소, 발전시설, 대형건물, 주요 공공건물 등의 주요 목표를 도시에 집중 시켜 놓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에게 손쉬운 목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곽병현, 2006).

1.3 테러의 유형

테러의 유형은 테러의 대상과 테러조직의 성격, 그리고 테러 공격전술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는 국가 간 테러, 국가테러, 국내테러, 그리고 초국가적 테러로 분류되며, 테러조직의 성격에 의한 분류로서는 민족주의자 및 소수민족 테러조직, 신좌경(new-left)에 의한 도시테러조직, 중남미의 혁명적 테러조직, 정치망명·반정부적 이민에 의한 조직, 이슈 지향적 조직, 범죄 또는 정신이상자들의 조직 등의 있다. 테러공격전술에 의한 분류는 폭탄테러, 독가스 살포, 납치, 유괴, 암살, 저격, 방화, 습격, 시위, 인질극 등이 있다(김열수, 2005).

1.4. 특수경비원의 의의와 특성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관할 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파업·태업 그 밖의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도 안되며,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기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최은하 등, 2008).

근무 방식은 주, 야, 비 3교대제나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근무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편이며 또한 업무의 특성상 각종 위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경비분야는 타 업종에 비해 근무환경 및 복지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 민간인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가 매우 낮다(김성진, 2010).

특수경비업은 성장한 배경을 보면, 그동안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는 기계경비시스템과 시설경비를 병행하는 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기계경비시스템의 기획과 설치는 전문 민간경비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시설경비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청원경찰과 계약경비회사 경비원들에 의해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비체계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이었다. 청원경찰은 경영주가 임용하지만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인력순환이 매우 비탄력적이며, 급여 또한 법령에 규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 청원이 많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이 시설주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경비전문화와 과학화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다. 청원경찰의 경우 개별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개 경쟁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방법이 병행되고 있었으며, 시험과목도 일반 교양과목 위주로 이루어져 해당 경비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특수경비제도는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주의 재정부담 경감과 그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던 민간경비업계의 새로운 시장 확장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어 탄생한 제도라 할 수 있다(김성연, 2004).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비원 중 특수경비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2011년 2월부터 동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특수경비업체 중 다수가 서울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으로 파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전체 특수경비원을 유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분석모형

이 연구는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테러리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Fig. 1은 특수경비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리즘 인식에 관한 분석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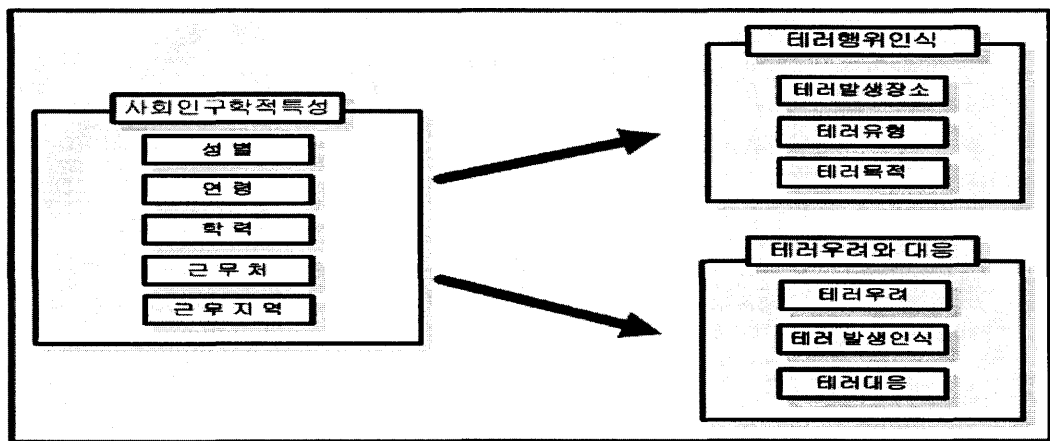


Fig. 1. 분석모형

3.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특수경비원의 테러리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행위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 발생 장소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 유형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 목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우려와 대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우려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의 발생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대응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첫째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처, 근무지역을 설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로 구성되었다. 둘째는 테러행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테러행위는 테러발생장소, 테러유형, 테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는 테러에 대한 우려와 대응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것은 테러의 우려, 테러의 대상 및 유형 인식, 테러대응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테러행위에 대한 인식, 테러에 대한 우려와 대응인식에 대한 설문지는 이대성(2004)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설문지 구성내용

구 성	내 용	문항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무처, 근무지역	5
테러행위 인식	테러발생장소, 테러유형, 테러목적	3
테러우려와 대응	테러우려	4
	테러의 발생 인식	7
	테러대응	4
전체		23

3.5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내용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한 후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문항의 내용을 재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서울지역 특수경비원 4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각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관리자의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극단치(outlier)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분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등이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특수경비원의 테러대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표집한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자	216	76.6	76.6	76.6
	여자	66	23.4	23.4	100.0
연령	20대	128	45.4	45.4	45.4
	30대	76	27.0	27.0	72.3
	40대이상	78	27.7	27.7	100.0
학력	고졸이하	89	31.6	31.6	31.6
	전문대졸	62	22.0	22.0	53.5
	대졸이상	131	46.5	46.5	100.0
근무처	공항	137	48.6	48.6	48.6
	교육시설	12	4.3	4.3	52.8
	기타	133	47.2	47.2	100.0
근무지역	대도시	205	72.7	72.7	72.7
	중.소도시	42	14.9	14.9	87.6
	소도시	35	12.4	12.4	100.0

성별의 경우 남자가 216명(76.6%), 여자가 66명(23.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20대 128명(45.5%), 30대 76명(27.0%), 40대 이상 78명(27.7%)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89명(31.6%), 전문대졸 62명(22.0%), 대졸이상 131명(46.5%)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근무처의 경우 공항 137명(48.6%), 교육시설 12명(4.3%), 기타 133명(47.2%)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역의 경우 대도시 205명(72.7%), 중.소도시 42명(14.9%), 소도시 35명(12.4%)으로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Cronbach's alpha가 테러인식 변수에서 테러우려 .790, 테러의 발생 인식 .814, 테러방지 인식 .616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설문지의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테러우려와 대응	테러의 우려 인식	.790
	테러의 발생 인식	.814
	테러 대응 인식	.616

4.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행위 인식의 차이

1) 테러 발생 장소 인식

특수경비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발생 장소 인식의 차이는 아래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구 분	국내테러발생장소						카이제곱, df, sig.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	터미널 공항, 역	해외대사관 영사관	놀이공원 광장	합계		
성별	남자	64(29.6)	84(38.9)	54(25.0)	5(2.3)	9(4.2)	216(100.0)	7.052, 4, .133
	여자	27(40.9)	21(31.8)	18(27.3)	0(0.0)	0(0.0)	66(100.0)	
	계	91(32.3)	105(37.2)	72(25.5)	5(1.8)	9(3.2)	282(100.0)	
연령	20대	42(32.8)	43(33.6)	36(28.1)	2(1.6)	5(3.9)	128(100.0)	5.433, 8, .710
	30대	23(30.3)	30(39.5)	18(23.7)	3(3.9)	2(2.6)	76(100.0)	
	40대이상	26(33.3)	32(41.0)	18(23.1)	0(0.0)	2(2.6)	78(100.0)	
학력	고졸이하	24(27.0)	34(38.2)	26(29.2)	2(2.2)	3(3.4)	89(100.0)	3.641, 8, .888
	전문대졸	21(33.9)	26(41.9)	13(21.0)	1(1.6)	1(1.6)	62(100.0)	
	대졸이상	46(35.1)	45(34.4)	33(25.2)	2(1.5)	5(3.8)	131(100.0)	
근무지	공항	48(35.0)	42(30.7)	39(28.5)	3(2.2)	5(3.6)	137(100.0)	8.042, 8, .429
	교육시설	2(16.7)	5(41.7)	5(41.7)	0(0.0)	0(0.0)	12(100.0)	
	기타	41(30.8)	58(43.6)	28(21.1)	2(1.5)	4(3.0)	133(100.0)	
근무지역	대도시	61(29.8)	72(35.1)	62(30.2)	5(2.4)	5(2.4)	205(100.0)	15.469, 8, .051
	중.소도시	13(31.0)	19(45.2)	8(19.0)	0(0.0)	2(4.8)	42(100.0)	
	소도시	17(48.6)	14(40.0)	2(5.7)	0(0.0)	2(5.7)	35(100.0)	

국내의 테러발생 장소로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는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84명(3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27명(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에 따른 응답을 보면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가 가장 테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20대는 43명(33.6%), 30대는 30(39.5%), 40대 이상은 32명(41.0%)으로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34명(38.2%), 전문대졸 26명(41.9%)으로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은 46명(35.1%)이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학력에서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처의 경우 공항근무자는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48명(35.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설 근무자와 기타시설 근무자는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근무자는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라는 응답이 72명(35.1%), 19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 근무자는 ‘정부주요시설, 관공서, 방송국’이라는 응답이 17명(48.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테러가 발생된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테러의 유형 인식

특수경비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발생 예측 유형의 차이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테러 발생 유형 인식에 대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로 살펴보면, 발생가능성이 높은 테러유형에 대해서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남자 144명(66.7%), 여자 26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를 보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5.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발생 예측 유형

N(%)

구 분		국내테러유형				카이제곱, df, sig.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요인.인질테러	핵테러	
성별	남자	144(66.7)	38(17.6)	28(13.0)	6(2.8)	28.445, 3, .000
	여자	26(39.4)	9(13.6)	24(36.4)	7(10.6)	
	계	170(60.3)	47(16.7)	52(18.4)	13(4.6)	
연령	20대	75(58.6)	19(14.8)	21(16.4)	13(10.2)	34.650, 6, .000
	30대	42(55.3)	9(11.8)	25(32.9)	0(0.0)	
	40대이상	53(67.9)	19(24.4)	6(7.7)	0(0.0)	
학력	고졸이하	57(64.0)	14(15.7)	16(18.0)	2(2.2)	7.839, 6, .250
	전문대졸	42(67.7)	7(11.3)	8(12.9)	5(8.1)	
	대졸이상	71(54.2)	26(19.8)	28(21.4)	6(4.6)	
근무처	공항	82(59.9)	12(8.8)	34(24.8)	9(6.6)	20.151, 6, .003
	교육시설	8(66.7)	4(33.3)	0(0.0)	0(0.0)	
	기타	80(60.2)	31(23.3)	18(13.5)	4(3.0)	
근무지역	대도시	117(57.1)	36(17.6)	44(21.5)	8(3.9)	9.868, 6, .130
	·소도시	26(61.9)	9(21.4)	4(9.5)	3(7.1)	
	소도시	27(77.1)	2(5.7)	4(11.4)	2(5.7)	

연령별로 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20대는 75명(58.6%), 30대는 42명(67.7%), 40대 이상 53명(6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로 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고졸이하 57명(64.0%), 전문대졸 42명(67.7%), 대졸이상 71명(5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처별로 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공항근무자가 82명(59.9%), 교육시설근무자가 8명(66.7%), 기타 근무자가 80명(60.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 ‘폭탄테러’라는 응답이 대도시 117명(57.1%), 중·소도시 26명(61.9%), 소도시 27명(7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테러의 목적 인식

특수경비원들에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목적 인식 차이는 아래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남자 73명(33.8%), 여자 25명(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20대는 49명(38.3%), 40대 이상 27명(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22명(28.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학력별로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고졸이하 31명(34.8%), 전문대졸 20명(32.3%), 대졸이상 47명(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6.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목적 인식 차이

N(%)

구 분		국내테러목적					카이제곱, df, sig.
		정치적 목적	이념적 목적	민족적 목적	종교적 목적	사회적 목적	
성별	남자	73(33.8)	56(25.9)	19(8.8)	15(6.9)	53(24.5)	12.270, 4, .015
	여자	25(37.9)	10(15.2)	3(4.5)	13(19.7)	15(22.7)	
	계	98(34.8)	66(23.4)	22(7.8)	28(9.9)	68(24.1)	
연령	20대	49(38.3)	27(21.1)	9(7.0)	8(6.3)	35(27.3)	16.588, 8, .035
	30대	22(28.9)	13(17.1)	6(7.9)	13(17.1)	22(28.9)	
	40대이상	27(34.6)	26(33.3)	7(9.0)	7(9.0)	11(14.1)	
학력	고졸이하	31(34.8)	18(20.2)	9(10.1)	6(6.7)	25(28.1)	5.756, 8, .675
	전문대졸	20(32.3)	14(22.6)	6(9.7)	6(9.7)	16(25.8)	
	대졸이상	47(35.9)	34(26.0)	7(5.3)	16(12.2)	27(20.6)	
근무처	공항	45(32.8)	27(19.7)	8(5.8)	17(12.4)	40(29.2)	11.149, 8, .193
	교육시설	4(33.3)	5(41.7)	2(16.7)	0(0.0)	1(8.3)	
	기타	49(36.8)	34(25.6)	12(9.0)	11(8.3)	27(20.3)	
근무지역	대도시	70(34.1)	40(19.5)	14(6.8)	22(10.7)	59(28.8)	23.401, 8, .003
	중·소도시	19(45.2)	13(31.0)	1(2.4)	4(9.5)	5(11.9)	
	소도시	9(25.7)	13(37.1)	7(20.0)	2(5.7)	4(11.4)	

근무처별로는 공항근무자의 45명(32.8%)과 기타 근무자의 49명(36.8%)이 ‘정치적 목적’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시설근무자 5명(41.7%)은 ‘이념적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70명(34.1%)과 중·소도시 19명(45.2%)이 ‘정치적 목적’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반면 소도시 13명(37.1%)에서 ‘이념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4.4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우려와 대응의 차이

특수경비원들의 테러 우려와 대응을 테러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방지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7. 성별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차이

구 분		N	M	SD	t-value	p-value
테러우려	남자	216	2.92	0.76	-5.100	0.000
	여자	66	3.39	0.63		
테러발생인식	남자	216	3.33	0.60	-4.298	0.000
	여자	66	3.68	0.52		
테러대응	남자	216	3.25	0.58	-0.430	0.668
	여자	66	3.28	0.41		

1) 성별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차이

성별에 따른 테러우려와 대응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남자가 2.92±.76, 여자가 3.39±.6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남자가 3.33±.60, 여자가 3.68±.52로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테러대응의 경우 남자가 3.25±.58, 여자가 3.28±.41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현 정부의 테러대응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8. 연령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차이

구 분		N	M	SD	F-value	p-value	post-hoc (Scheffe)
테러우려	20대	128	2.93	0.78	4.545	0.011	a<c
	30대	76	2.98	0.72			
	40대 이상	78	3.24	0.73			
테러발생인식	20대	128	3.33	0.67	2.257	0.107	
	30대	76	3.51	0.56			
	40대 이상	78	3.45	0.50			
테러대응	20대	128	3.25	0.62	0.073	0.929	
	30대	76	3.25	0.39			
	40대 이상	78	3.28	0.55			

2) 연령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연령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40대 이상이 3.2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2.98±.72, 20대는 2.93±.7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후검증(Scheffe)결과 40대 이상과 20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30대가 3.51±.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3.45±.50, 20대가 3.33±.67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방지의 경우 40대 이상이 3.2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2.25±.39, 20대는 2.25±.62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3) 학력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학력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대졸이상이 3.1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은 3.07±.77, 고졸이하는 2.81±.6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후검증(Scheffe)결과 대졸이상과 고졸이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대졸이상이 3.5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은 3.41±.42, 고졸이하는 3.27±.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Scheffe)결과 대졸이상과 고졸이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의 경우 고졸이하가 3.2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이 3.26±.48, 대졸이상이 3.25±.60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9. 학력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차이

구 분		N	M	SD	F-value	p-value	post-hoc (Scheffe)
테러우려	고졸이하	89	2.81	0.69	5.693	0.004	a<c
	전문대졸	62	3.07	0.77			
	대졸이상	131	3.15	0.78			
테러발생인식	고졸이하	89	3.27	0.57	4.373	0.013	a<c
	전문대졸	62	3.41	0.52			
	대졸이상	131	3.51	0.64			
테러대응	고졸이하	89	3.27	0.51	0.015	0.985	
	전문대졸	62	3.26	0.48			
	대졸이상	131	3.25	0.60			

4) 근무처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근무처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기타 근무자가 3.0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항근무자는 2.99±.79, 교육시설근무자는 2.92±.48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공항근무자는 3.4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근무자 3.36±.68, 교육시설근무자는 3.15±.42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테러방지의 경우 교육시설근무자는 3.5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항근무자는 3.26±.57, 기타 근무자는 3.23±.51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Table 10. 근무처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차이

구 분		N	M	SD	F-value	p-value	post-ho (Scheffe)
테러우려	공항	137	2.99	0.79	0.495	0.610	
	교육시설	12	2.92	0.48			
	기타	133	3.07	0.75			
테러발생인식	공항	137	3.48	0.51	2.665	0.071	
	교육시설	12	3.15	0.42			
	기타	133	3.36	0.68			
테러대응	공항	137	3.26	0.57	2.113	0.123	
	교육시설	12	3.56	0.52			
	기타	133	3.23	0.51			

5) 근무지역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

근무지역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의 차이에서 테러우려의 경우 대도시가 3.1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 2.93±.78, 중소도시 2.65±.7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Scheffe)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근무자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인식의 경우 대도시근무자가 3.46±.56으로 가장 높게

Table 11. 근무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

구 분		N	M	SD	F-value	p-value	post-hoc (Scheffe)
테러우려	대도시	205	3.12	0.74	7.217	0.001	b<a
	중.소도시	42	2.65	0.74			
	소도시	35	2.93	0.78			
테러발생인식	대도시	205	3.46	0.56	2.454	0.088	
	중.소도시	42	3.28	0.50			
	소도시	35	3.29	0.86			
테러대응	대도시	205	3.25	0.50	0.556	0.574	
	중.소도시	42	3.34	0.55			
	소도시	35	3.23	0.75			

나타났으며 소도시 근무자는 3.29±.86, 중소도시 근무자는 3.28±.5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방지의 경우 중소도시 근무자가 3.3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근무자는 3.25±.05, 소도시 근무자는 3.23±.7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특수경비원의 테러와 테러대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수경비원들은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의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일어날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구특성에 따라 '생화학테러'와 '요인·인질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테러의 목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이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테러우려, 테러발생 인식, 테러대응)의 차이에서는 성별의 경우 테러우려와 테러 발생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하위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테러우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20대보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테러우려와 테러발생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하위변인 모두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처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의 경우 테러우려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만약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폭탄테러가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시민들의 테러발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테러리즘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차이와 테러대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특수시설에 대한 대테러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경비 및 민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 특수경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든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특수시설에 대한 대테러 관련 대책방안과 학술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어 변수 설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독립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처, 근무지역을 설정 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 직위, 월수입 등 다양한 독립변수 설정이 이루어져 보다 다각적 분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요소인 종속변수(테러인식, 테러방지의 인식)의 구성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요인별 설문문항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Gurr, T.R. (1971).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 [2] 박병현 (2006). 테러활동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북한테러활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 [3] 국방부 (2002). 국제 테러리즘: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국방부 정책기획국 대외정책과.
- [4] 군사세계 (2002). 촘스키 박사가 보는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를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 국방부.
- [5] 김성언 (2004).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6] 김성진 (2010). “특수경비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연구논집, Vol.7, pp.111-132.
- [7] 김열수 (2005). “한국군의 테러대응 활동 정립 방안.” 2005 합동교리발전세미나.
- [8] 변무흠 (2006). 21세기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9] 이대성 (2004).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10] 이태운 (2010).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 서울.
- [11] 이황우 (2010). 테러리즘. 법문사, 서울.
- [12] 정형근 (1992).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원, 서울.
- [13] 최은하, 유영재, 이상빈 (2008).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6, pp.1-13.
- [14] 최진태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서울.
- [15] 한남수 (2002). 21세기 국제테러리즘의 추이와 대응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 논문접수일 : 2011년 10월 20일
- ▶ 심사의뢰일 : 2011년 10월 21일
-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01일